

구례읍 힙(hip)한 골목길 여전사 몽쳤다

아침을 열며

정연권

구례군도시재생지원 센터장



목에 숨어있던 한옥을 구매해 외형은 그대로 살리면서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했다. 외국에서 얻은 경험과 따뜻한 마음의 손길이 닿은 한 점 한 점이 작품이다. 탁월한 감각과 섬세함으로 조화롭게 꾸민 방에서 하룻밤만 묵어도 힐링이 된다. 구례에서 처음 에어비앤비(Airbnb)에 등록된 곳으로 누구든지 예약하면 숙박을 제공한다. 꽃 사랑꾼으로 유럽의 작은 정원을 연상케 하는 독특하고 낭만적인 정원을 손수 만들었다.

‘카페 스웸(swim)’은 “너는 지금 인생을 잘 헤엄치고 있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할 거야”라는 뜻이다 한다. 이채령 대표는 말이 적고 자연스러운 긴 머리에 순수한 모습의 ‘매직전사’다. 울산에서 귀촌한 진정엄마 덕에 구례 남자와 사랑을 맺어 동지를 틀었다. 평소 카페에 관심이 많아 이미지가 있는 카페를 열었다. 간소하면서 깔끔한 이미지로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만석을 이룬다. 신체대 휴식처로 만남 장소로 사랑받는다. 질 좋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기에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구례읍사무소 코너 ‘모란상점’은 특이하다. 가게가 아니라 예술공간이요 티룸(Tea Room)이다. 이형란 대표는 귀향한 구례인으로 ‘베푼전사’다. 갤러리를 열어 개인 작가들의 초대전을 열었고 지인의 티룸을 알아봐 주다가 가게를 열게 됐다. 다양한 상품들로 눈 호강을 시켜준다. 살랑살랑 쉬폰 원피스부터 살짝 쓰기만 해도 영화배우가 될 것 같은 독특한 모자, 나무 그릇과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소품들이 있다. 센스있는 옷을 입어보는 거울이 자개 화장대라는 자체만으로 예술공간이다. 피아골에서 차나무를 기르고 제다 해 손님에게 무료로 내어준다. 상점에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욕심나는 물건들이 많아 자꾸만 지갑을 열게 된다.

구례주조장 가는 길에 알록달록 예쁜 옷이 많은 ‘선아씨 가게’가 있다. 김선아

대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열혈전사’로 불린다. 아픈 진정엄마를 보살피기 위해 귀향한 효녀다. 순천·여수 등지에서 보따리 장사하며 안목을 키우고 노하우를 쌓았다. 손님마다 개성과 특성을 파악해 알맞은 옷을 추천해 주는 감각이 뛰어났다. 서울 도매상에 물건을 가져와 가격도 저렴하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단골손님이 겁나게 많아 장사할 맛이 나고 행복하다”고 했다. 물건 해오는 날에는 가게 밖까지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열심히 살아온 노력의 결과가 가게 번창으로 이어져 골목길이 환해지고 활기차서 흐뭇하다.

우체국 앞 ‘리피&꼬물꼬물’ 카페가 있다. 이름만으로도 짝짝하고 신나는 신나리 대표다. 웃으면서 정답게 맞이하는 ‘사랑전사’다. 여대생처럼 보이지만 네살 아들의 엄마라는 사실에 충각들의 실망이 크다는 후담이다. 리피(Leafy)는 잎이 무성하다는 뜻으로 인테리어 하는 남편이 꾸며서 구성이 알차다. 직접 만든 마크라메(서양매듭)는 카페 곳곳을 빛나게 해준다. 옷과 양말, 악세사리 등이 진열돼 있어 여성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차를 마시면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구매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여성들의 해방공간이요 카렌시아(Carencia)로 사랑받는다.

6인의 여전사 모두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최고의 가치로 저렴하게 공급해 ‘가성비’와 ‘가심비’가 높다. 프로정신이 뛰어나 편하고 신속한 서비스로 고객 만족과 고객 감동에 이어 고객을 기절시킨다. 섬세하면서 아름다운 여성의 마음과 강인하고 정 많은 엄마 마음으로 가득한 여전사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세상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발전한다. 모두가 이익이 되도록 도움 주고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진정한 사랑과 관심으로 골목길 상권이 살아나도록 하자.

社說

‘장고 끝 악수’ 민주당 이 무슨 촌극인가

혁신위원장 9시간만 판 얹어

내정된 지 9시간만의 사퇴다. 이래 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이야기다. 그가 박차고 나온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위치다. 앞서 지난 달 14일 민주당은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를 열고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혁신기구’다. 현 민주당 내부의 문제를 쇄신하고 새로운 당을 위한 발판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곳의 수장으로 내정된 이가 반나절도 못돼 판을 엮었다. 이 무슨 촌극인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은 민주당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외부적으로 튼튼했다면 내년 총선 필패는 당연할 정도의 사안이었다. 그러나 마치 누가 더 못하나 경쟁을 하듯 흔들리기는 여당도 마찬가지여서 혁신기구는 난국을 뚫는 비장의 수로 떠올랐다. 하나 의중 결의 이후 보름간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이사장 선임을 밝혔다.

혁신위원장은 내년 총선, 나아가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의 변화를 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만들어진 조직의 수장이다. 민주당에 쓴소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현 거대야당의 굵은 상처인 내분에도 직설적으로 칼을 대 돌려내는 냉정함이 요구되는 자리다. 가급적 중립적인 인물이자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지 않은 사람이 앉는 게 상식 아닌가.

헌데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 이사장의 임명이 공개됐을 때 최고위원 중 그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백 번 물러나서 신선한 인물이라면 최고위원들이 모를 수는 있다. 허나 적어도 명확한 검증이 수반됐음은 증명해야 한다. 뚜껑을 열어보니 천안함 자폭설, 코로나 미국 기원설, 대선 조작설 등 음모론 관련 글 뿐만 아니라 2019년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구성의 대표 제안자이기도 하다.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이 한수에 ‘대마’까지 잡힐 듯 싶은 민주당의 촌극이 한심하다.

은둔형 외톨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

광주 1만 2천명 외부와 단절

사회와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가 광주에만 1만 20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이들 상당수가 가족과 대화가 단절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래 여성을 살해·유기한 ‘정유정 사건’ 이후 ‘은둔형 외톨이’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물론 광주시 등 관계기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 작용해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가 최근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은둔 생활을 하는 응답자 175명 중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가 42.9%를 차지했다. 과거 은둔 생활을 했던 응답자 62명 중 46.8%도 ‘가족 누구와도 소통이 없었다’고 답했다. 은둔 생활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31.2%로 가장 많았고,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주된 계

기는 ‘취업에 실패해서’가 27.8%로 나타났다.

이들이 은둔을 선택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주위에서 받은 차별이나 폭력의 상처, 취업 실패, 실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고립이 길어질 경우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 되고 ‘정유정 사건’처럼 범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상에 복귀하지 못하면서 복지나 경제적 측면 등 사회가 부담해야 할 손실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광주시는 센터와 협업을 통해 이들이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 지원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 공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사회의 부정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혼자가 된 게 그들만의 탓은 절대 아니다. 어려움에 처한 젊은이를 찾아내고 다가가는 우리 사회의 열린 마음과 관심이 필요하다.

“특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전남일보 e-mail webmaster@jnilbo.com

전화 (062)510-0321

서석대



“구름은 서석산에서 먼 산으로 흩어지고/ 얼굴에 부는 바람 객의 마음을 달래주네/ 눈에 비친 석류꽃 비가 그친 뒤에 굵고/ 맑은 날 좋아하는 비둘기 주렴 밖에서 노래하네/ 높은 정은 산 아지랑이 밖에 부치고/ 맑은 생각은 섬돌가 대나무를 따르네/ 난간을 치며 노래 부르니 시상이 절로 우러나/ 다시금 시원한 달빛 뜰에 가득함을 바라보네.” 송순의 ‘면양집’에 실린 ‘광주 회경루에 차운한 시(차광주회경루운·次光州喜慶樓韻)’이다.

광주시가 지난 2018년 ‘정도 1000년의 해’를 기념해 ‘회경루(喜慶樓)’ 중건사업

을 본격화했다. 회경루는 1451년(문종 원년) 군수 안철석이 지었다. 당시 회경루는 남북이 5칸, 동서가 4칸으로 그 넓고 훌륭한 기가 조선에서 제일이었다고 전한다. 조선 초기 문신인 신숙주(1451년)는 회경루를 ‘동방에서 으뜸가는 누’라고 칭송할 정도로 웅장하고 빼어난 자태를 갖췄다고 기록했다.

세종 12년(1430) 광주읍민 노홍준이 목사 신보안을 구타한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광주목은 무진군으로 강등됐는데, 문종 원년에 다시 광주목으로 복권된 것을 기념해 ‘기쁘고 경사스럽다’는 의미로 ‘회경루’라 이름 붙였

다.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광주읍성이 헐리면서 회경루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됐다.

회경루의 위치는 역사자료 대부분에서 ‘광주목 관아, 객사의 북쪽’을 지목하고 있다. 사료를 종합해보면 지금의 충장로 ‘무등극장’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

회경루 복원은 ‘회경루 방회도’(보물 제1879호,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를 기초로 삼았다. 회경루를 복원할 유일한 단서였다고 한다.

회경루의 복원 위치로 여러곳이 거론됐다. 대상지는 추정 원위치인 광주우체국과 아시아문화전당, 광주공원, 제일극장, 사직공원, 풍암제 등 6곳을 후보로 올렸다. 탁 트인 조망과 주위 경관과의 문제, 녹지와 조성시설이 가능한지 여부, 지가와 경제성 등을 두루 따져 ‘광주공원’으로 결정했다.

광주공원에 자리할 회경루가 이달 말께 웅장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광주시는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삼았다. ‘동방에서 으뜸가는 누’라고 칭송했던 회경루가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 보물로 자리매김 하길 기원해 본다.

김성수 정치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 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www.jnilbo.com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